



자기계발로 몸값 올리기

‘미다스’ 박삼구



대우건설 인수
파리노선 취항
1년새 숙원사업
잇단 성취 화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대우건설 인수, 파리노선 취항 등 추진하는 프로젝트나 숙원사업을 잇따라 성취해내면서 재계의 ‘미다스 손’으로 부상하고 있다.

25일 재계 및 금호아시아나에 따르면 박삼구 회장은 지난해 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아 대우건설 인수와 아시아나항공의 파리노선 취항을 숙원 사업으로 여기고 임직원들을 독려했는데 불과 1년만에 이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

박삼구 회장의 이같은 꿈이 이뤄지기까지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2월 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 기업 이미지를 발표하면서 대우건설과 대한항공 인수 의사를 동시에 밝혔다가 무모하게 몰입 불리기에 나선다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자산 12조원이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자산 6조원에 달하는 대우건설을 인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두산, 한화, 프라임, 유진 등 만만찮은 경쟁 상대까지 나타나 난항을 거듭했지만 박 회장은 독심을 가지고 밀어붙여 결국 지난해 6월 대우건설 인수합병에 성공했다.

이로써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두산그룹을 추월하고 경쟁사인 한진그룹에 이어 재계 8위로 떠오르게 됐다.

이후 박 회장은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 창사 이래 숙원 사업이던 서울-파리 노선 취항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했다.

박 회장의 강력한 의지에 자신감을 얻은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한·프랑스 항공회담을 앞두고 파리노선 취항의 정당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정부 또한 파리 노선 복수 취항의 필요성을 공감해 파리 노선을 따낼 수 있었다.

이제 관심은 그의 미다스 손이 다음 목표인 인수가격 2조원대의 대한항공에도 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종태기자 jtee@kwangju.co.kr

평생직장 아닌 평생직업이 최고다

바야흐로 1인 기업의 시대다. 자신이 소속된 조직이 있던 없건간에 다양한 경쟁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전문가들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블루오션을 창출해가고 있다. 독일의 유명한 머니코치인 보드셔퍼는 전문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을 1이라고 했을 때 1/3은 현실적으로 처한 업무 처리를 위해 힘쓰고, 1/3은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며, 1/3은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월 소득 10% 자기계발에 투자를 남들과 차별화된 경쟁력 갖춰야

사실 자기계발에 대한 필요성은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인 기업 경쟁속에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갈수록 기업체의 정년은 짧아져 40대가 돼 경쟁력이 없어지면 고용주의 눈치를 보는 경지에 이르렀다. 즉 평생 직장 개념은 무너진지 오래이며, 오직 전문가들이 살아남는 평생직업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20%가 조직의 80%의 일을 하며, 20%가 전체 부의 80%를 가져간다는 파레토의 법칙처럼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

해 경쟁을 제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구축할 수 있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일본의 단카이 세대를 예로 들어보자. 단카이 세대란 2차 세계대전 후 1947~49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며 이 기간동안 일본에서는 매년 약 270만 명이 태어났다. 10년 후인 1959년의 출생수가 157만명에 지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 때의 출산분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만 하다. 단카이 세대의 선봉적인 1947년생이 만 60세가 되는 시점이 바로 2007년이

며, 이에따라 은퇴하는 단카이 세대들은 그 전문성에 따라 향후 대우에 있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분야의 명장으로 불리는 이들은 기업측의 요청으로 은퇴시점을 미루거나 후배 양성을 위해 본인만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들은 은퇴를 앞 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현업이 힘들기 때문에 혹은 1달 후에 시작하겠다는 계층에 실행은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예 자기계발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위와 경우처럼 자기계발에 소홀히 해 경쟁력 없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업무를 고집할 경우에는 어느 순간 퇴직을 강요당하고 있거나 부가가치가 낮은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월 소득을 잘 관리해 잉여자금을 만들고, 이를 투자해 종자돈을 마련하거나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 재테크일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인생설계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남들보다 높은 보수를 받으며, 이를 통해 평생 직업을 가지고 자기만족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적어도 월 소득의 10%는 자기계발을 위해 투자하고, 가능하면 오늘부터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라고 독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다.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시장은 무한히 열려있고, 거기서 여러분은 평생 직장도 자기만족을 얻을 수 있을거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TNV 아드바이저)

작년 성장률 5% 목표치 ‘턱걸이’

수출 첫 감소로 경기전망 ‘비상등’

한은, 연간 실적 발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대로 5.0%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4·4분기 경기 조정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주 엔진으로 작동하던 수출 부문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세를 기록함에 따라 향후 경기 전망에 비상등이 켜졌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직전분기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예상

치인 0.7%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직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은 2005년 3분기와 4분기 각각 1.6%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1분기 1.2%, 2분기 0.8%, 3분기 1.1%였다. 지난해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경기가 본격 하락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일부 민간 연구소의 지적은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이광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4분기는 경기가 장기추세선보다 조금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연간 경제성장률은 5.0%로 한은이 2005년 말 제시했던 전망치를 달성했다. 제조업은 연간 기준 8.3% 성장해 2005년의 7.0% 대비 강세를 보였으며 설비투자도 7.5%로 2005년의 5.1% 대비 상승세였다. /연합뉴스

권오규 부총리 “공공주택 획기적 확대”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5일 “부동산시장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작업 중에 있다”면서 “빠르면 2월 초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이닉스반도체의 공장 증설과 관련, “특정위험물질 허용기준 설정 등 환경에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법령개정을 끝낸 뒤 공장을 증설할지, 이전이 아닌 지역에 할 지는 기업의 선택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무역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권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의 공공부문 역할 강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준비하고 있다”면서 “우선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주5일 근무 시행 기업 70% “노동생산성 떨어졌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기업 70% 가량이 노동생산성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100인 이상 규모 중소기업 202곳 대해 최근 제도 도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95%의 기업이 시행중이며 이들 기업 중 71.8%가 “노동생산성이 떨어졌다”고 답했다. 노동생산성 증감률은 ‘5% 미만 감소’했다는 대답이 31.8%, ‘5~10% 감소’ 26%, ‘5% 미만 증가’ 19.8%, ‘10~15% 감소’ 7.3%, ‘5~10% 증가’ 6.8% 등이었다. /이종태기자 jtee@kwangju.co.kr

제도 실시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감은 ‘5~10% 증가’ 39.5%, ‘5% 미만 증가’ 24.0%, ‘10~15% 증가’ 15.6%, ‘거의 변화 없음’ 14.6% 등의 순이었다.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보통이다’(34.9%), ‘비교적 긍정적이다’(32.3%), ‘부정적이다’(20.3%) 등의 순이었다. 제도 도입 준비기간은 ‘4~6개월’ 39.1%, ‘2~3개월’ 23.4%였으며 도입 시 예외사항으로는 ▲제도 관련 실무지식 부족 ▲노사간 이견 ▲내부 전달력 부족 등이 꼽혔다. /이종태기자 jtee@kwangju.co.kr



‘설 선물세트 이것이 좋아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5일 1층 특설매장에서 ‘설 선물세트 품평회’를 갖고 50여 품목의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고객과 직원 250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실시한 선물세트 선호도 조사결과 ‘주고 싶은 선물’ 1위에는 한우알뜰세트가, ‘받고 싶은 선물’ 1위에는 황토소금 황제굴비가 선정됐다. /위정리기자 jrwi@kwangju.co.kr

농협중앙회 나뉜다

2017년 신용·경제사업으로 ‘분리’

국내 최대 협동조합단체인 농협중앙회가 오는 2017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으로 크게 두개로 나뉜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맞춰 2015년까지 모두 13조 원을 들여 경제사업부문을 대폭 강화해 판매중심의 유통조직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신·경 분리)는 국내 금융업계는 물론 유통업계에 일대 지각변동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의 신용과 경제 부문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향후 10~15년간 최대 13조7천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재 농협중앙회내 3대 사업영역인 경제, 신용(은행), 교육, 지원 부문이 3개 독립법인으로 분리돼 독자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제 4조6천198억원 ▲신용 4조5천619억~5조9천43억원 ▲교육,지원 3조2천64억원 등 총 12조3천881억원~13조7천305억원의 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신용부문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필요 자본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BIS 권고수준인 10%를 목표로 하면 4조5천618억원, 농협 신용부문의 현재 수준인 11.81%를 유지하려면 5조3천697억원, 시중은행 평균 수준인 13%를 맞추려면 5조9천43억원이 각각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연합뉴스

차량 머리 지지대 80%가 불량품

국내 차량에 장착된 머리 지지대의 80% 이상이 추돌 사고를 당했을 때 운전자를 목부상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HS)와 공동으로 국산 준중형급 이상 승용차의 13개 차종을 대상으로 머리 지지대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11개(84%) 차종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평가 결과 우수와 양호, 보통, 불량 등 4개 등급 가운데 능동형이 장착된 기아 로체만 양호 판정을 받았다. 현대 에쿠스와 르노삼성 뉴SM7은 능동형 지지대를 장착했음에도 불량 등급을 받았다. 기아의 뉴오피러스는 보통으로 평가받았다. 기아 오피러스와 현대 그랜저TG, 쌍용 뉴제이엔, 현대 NF쏘나타, GM대우 토스카, 르노삼성 뉴SM5 등 일반형 지지대를 장착한 9개 차종은 모두 불량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우박맞아 기체 파손 비상착륙 아시아나항공·조종사 중징계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일죽 상공에서 우박을 맞은 뒤 기체가 파손돼 비상 착륙한 아시아나항공 8942편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에 중징계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 항공안전본부는 지난 6월 9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에 1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항공기 기장과 부기장에 각각 3개월과 1개월반의 자격정지 효력 정지라는 행정 처분을 부과했다. 항공안전본부는 당시 아시아나 항공기가 김포공항으로 접근강하 중 비우에 대한 주의 소홀 및 비우회피 절차를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등 중대과실을 범해 항공기 전방 레이다 덮개가 떨어져 나가고 조종실 전면 방풍창이 파손되는 항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징계를 계기로 삼아 보다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땅값 안정세

1년간 상승률 1.4%, 1.9%

지난해 수도권과 충남의 땅값이 큰 폭으로 치솟으면서 연간 땅값 상승률이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량 및 자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의 땅값은 5.61% 올라 2002년(8.98%)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9.17%)을 비롯, 인천(5.58%), 충남(5.54%), 경기(5.07%) 등 수도권과 충남의 땅값 강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광주·전남은 나주시 등 일부 시·군을 제외하곤 땅값 안정세가 두드러졌다. 광주·전남은 1년간 땅값 상승률이 각각 1.44%, 1.91%로 나타나 전국 평균(5.61%)은 물론 충북(4.37%), 대구(4.18%), 대전(4.15%), 부산(2.49%) 등의 상승률을 밑돌았다. 다만 전남의 경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의 호재로 인해 나주시(9.86%), 무안군(4.56%), 해남군(3%) 등의 땅값이 크게 올랐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전국의 땅값 상승률이 0.49%로 전월(0.51%)보다 낮아졌다. 서울(0.81%)과 인천(0.57%)의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으며, 광주·전남은 각각 0.05%, 0.10% 올랐다. 같은 기간 광주의 토지거래량은 9천24필지, 433만5천㎡로 전월보다 필지수와 거래면적이 전월보다 각각 14.7%, 44.6% 증가했다. 전남도 1만7천369필지, 3천739만㎡의 토지가 거래돼 전월보다 각각 45.9%, 11.6% 늘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Job Name, Department, Location, Salary, Start Date, Contact Info. Includes jobs like ①상업정밀, ②센서(SENQ), ③풍기산업, etc.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